



효천 테마 독서 2학년

"고민"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 시공주니어

늘 혼자 놀던 귀 큰 토끼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에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를 열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시무룩했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얼룩 고양이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고 찾아온 거였어요. 귀 큰 토끼는 얼룩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 처방전을 건넵니다.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올까요?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밀리 테이시도르 / 책속물고기

개미 미가가 코끼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숲속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엔 얼룩말이 찾아와 미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요. 그다음엔 당나귀가 찾아왔어요. 숲속 친구들은 자신의 고민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민은 있을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라면 숲속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숲속 별별 상담소〉 신전향 / 파란자전거

하루, 꺾충이, 덩치, 으르렁은 숲속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에요. 남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네 명의 친구들은 별별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선입견 없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하루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데요. 하루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누구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거예요.

〈병하의 고민〉 조은수 / 한올림스페셜

"할머니, 저 아이는 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병하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병하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도 할머니의 말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병하에게 할머니는 "너와 함께 살기 위해 온 거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선입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요.

